



뒷면에 불교의 상징인 수미산 이름을 새겨넣은 금동천문도.

전국 박물관 '여름 방학 기획전' 봇물

몸 시원 눈 시원 지식 '팍팍' 쌓이네

여름방학과 휴가철이다. 산과 바다로 떠나는 것도 즐거운 피서법이지만 고속도로에서 휴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전국의 박물관을 찾아가 보자. 시원한 냉방장치와 함께 옛 선조들의 손때 묻은 유물을 통해 역사의 진한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박물관의 경건하고 서늘한 분위기에 더위는 어느덧 사라진다.

천문과 탕화, 도자기 등 우리 불교 문화 유산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전국의 국립박물관과 성보박물관 등지에서 열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경주박물관은 일본 나라(奈良) 국립박물관에서 천마총 출토 금관을 비롯, 신라고분 출토품을 대거 선보이는 '황금의 나라, 신라-왕릉의 보물' 국외특별전을 개최중이다. 가볼만한 주요 전시회를 소개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천문-하늘의 이치, 땅의 이상'展=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하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국내 천문관련 유물 100여점이 출품됐다. 총 4부로 나뉘어 8월 28일까지 열린다. 작품으로는 앞면에 28수의 별 구멍을 뚫어 진주를 박고, 뒷면에는 불교의 상징인 수미산의 이름을 새겨 넣은 금동천문도(보물 제1373호)가 볼만하다. (02)3704-3152



승이나 석류 등의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아 있는 산신 그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영천 은해사 박물관 소장 산신탱이다. 이외에도

國般若經疏法衡抄》 권 6에 수록된 후기의 내용을 고려 대각사 의천 스님의 경전 조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서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간경도감 중수본>은 조선 세조때 왕명으로 간경도감을 설치해 고려시대 의천 스님의 간경본을 저본으로 다시 간행한 책으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5종 등 일부만 전해져 오고 있고 모두 보물로 지정돼 있다.

▲국립대구박물관 '우리 문화속의 중국 도자기'展=8월 29일까지 계속되는 대구박물관 특별전은 우리나라 출토 및 전래 중국 도자기를 집성했다. 특히 중국 도자기가 출토된 국내 유적 70곳에서 나온 157점의 유물과 관련 도판 등이 함께 전시돼 이해를 돕고 있다. (053)768-6051

▲직지사 성보박물관 '산신탱과 독성탱 기획展'=불교회화 가운데 불교 외적인 신앙 형태가 가미된 것으로 칠성탱과 산신탱, 독성탱을 들 수 있다. 이중 산신은 호법신 중의 하나로 주위에는 동자가 등장하며 북

이번 전시회에서는 용모사, 고방사(사진), 직지사 소장의 산신탱화가 올해 연말까지 벽에 걸린다. (054)436-6009

▲송광사 성보박물관 '불교문헌 회귀본展'



<묘법연화경현의>.

송광사 성보박물관은 고려시대와 조선 초에 발간된 회귀본현 50여 종을 10월 13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월 사천왕문과 사천왕상(四天王像) 보수불사를 하던 중 사천왕상 복장(腹藏)에서 발견된 <간경도감 중수본> 등 14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인왕호국반야경소발명초(仁王護

▲통도사 성보박물관 '해남 미황사 괘불탱展'=10월 1일까지 열린다. 높이가 1.170 폭 486cm의 크기로 삼베 바탕에 그린 미황사 괘불보물 제 1342호·사진 오른쪽은 화면 중앙에 크게 석가모니불을 강조한 뒤, 아랫부분은 바다의 세계를 표현, 금함(金函)을 든 해상용왕(海上龍王)과 용녀(龍女)의 모습을 그렸다.

이 괘불은 조선 영조 3년(1727)에 금어(金魚) 탁행(琢行)을 우두머리 화승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화사 7인이 함께 참여하여 그렸다.

특히 바닷가에 위치한 사찰의 불교신앙적 특징을 담은 독특한 구성이 주목된다. 색채는 녹·적색의 밝은 선염(線染)과 녹두·분홍·황토 등 중간색이 사용되어 은은하면서도 환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055)382-1001

김주일 기자jim@buddhapia.com



불지사리 한국온다

내년 부처님 오신날 '친견' 가능



중국 1급 국보, 세계 9대 지적 지하궁전 최상 유물 20점 포함

부처님 진신 불지(指骨)사리가 내년 부처님 오신날 한국에 온다. 무역업체 TNC는 7월 11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사진) 한국 봉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법문사 박물관 한진케(韓進科)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1987년 중국 산시성 시안(西安) 법문사에서 발굴돼 이목을 끌었던 이 사리는 석가모니가 열년에 든 뒤 7일간 다비식을 거쳐 남은 손가락뼈, 몇 번째 손가락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중국의 1급 국보에 속하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9대 지적이기도 하다. 이 사리가 해외의 나열에 나선 것은 그동안 단 세 차례(대만, 홍콩, 태국)에 불과하다. TNC의 변천근 이사는 "워낙 귀한 물건이라 1년을 넘게 협상을 벌인 끝에 중국측으로부터 국내 전시 허락을 받아냈다"며 "내년 약 8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지방의 대도시 두 세 군대를 돌며 친견 법회와 전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케 관장도 "산시성 문화재청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본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전시규모와 내용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불지사리와 함께 지하궁전 감실에서 발굴된 최상급 유물 20점도 전시할 예정"이라며 말했다.

법문사 불지사리는 전국시(戰國時期)에 서역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지진과 홍수 등으로 땅속에 묻히는 바람에 세상에 잊혀졌으나, 87년 법문사 진신보탑(眞身寶塔)의 지하궁전 후실의 비밀 감실(陰室)이 발굴되면서 유물 3천여 점과 함께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됐다.

김주일 기자

2000만 불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법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종25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 ◆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 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들에게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 ◆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들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음이 넘치는 룬장(輪藏) 묘음 법륜장(妙音法輪藏)



묘음 법륜장 개금 ₩1,089,000 → 864,000

묘음 법륜장 청동 ₩669,000 → 430,000

사용법

묘음 법륜장 전면에서 사람이 2M이내 접근시 인체감지센서가 감지하면 전자회로가 작동, 예닐레 종소리(3번)와 세소리, 바람소리가 발생과 동시에 목탁소리가 함께 반야심경(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제 10호 법맥작법보유자 김능화스님)독음이 울려 퍼진다. 이때 여의주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1분 1회)LED전구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5색의 찬란한 빛이 여의주표면 글자에 비춰지며 화엄경의 상단부분에 불꽃형상이 나타난다. 작동시간은 4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감지센서에 사람이 감지되면 재작동을 반복한다.

* 본 제품 음성입은 원어는 음성을 깨워 입할 수가 있습니다.

30대 특별할인 한정판매

판매처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마이월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제품명 : 가릉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목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왕고 음향에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옆 스피커(3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연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정적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 변경, 알람시간조절, 일일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INCH 3개, MP3장착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정적), 오토리버스 기능, 불멸조
- 전원 :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티동 기능(티동 횟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3번 작동 가능, 예 :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옆트 기능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 소비자가 : 5,9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 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인체포함)
- 총제작업체 : 상경사
-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